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2019 소통이 흐르는 밤 제2부 속기록

- 일 시 : 2019년 11월 2일 (토) 19:00~21:00
- 장 소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소통컨퍼런스홀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서 문

1. 일 시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19:00~21:00
2. 장 소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소통컨퍼런스홀
3. 의 퇴 처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4. 문서양식	-글꼴 : 신명조 -크기 : 12pt -총 페이지 : 55페이지
5. 주	-본 문서는 속기법에 의하여 기록, 작성되었습니다. -이해력을 돕기 위해 일부 무의미한 어구와 사투리 등은 작업자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9 소통이 흐르는 밤 제2부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박원진 이사장 :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원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보니까 은종님께서 수어로 수어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에이유디가 지금 여러분들이 소통이 흐르는 밤에 오셨잖아요. 소통이 흐르는 밤을 주최하고 주관하는 에이유디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에이유디는 어떤 기업이냐 하면, 우리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고요. 모두가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 현재 257명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유디의 비전은 청각장애인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통과 나눔을 위해 협동하는 조합이고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에이유디가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우리 에이유디의 풀네임은 아래에 보시면 Auditory Universal Design이거든요.

Auditory Universal Design은 각 앞글자를 따서 AUD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청각의 보편적 설계라는 뜻이에요. 청각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보편적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유디가 언제부터 생겼냐, 2014년부터 6명을 조합원과 함께 시작해서 6년 만에 257명의 조합원이 있고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유디가 어떤 일을 하나 하면, 대표적으로 의사소통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스크린 위에 보시면 글자가 보이죠?

보기 편하지 않나요? 에이유디에서 문자통역 서비스를 앞에 있는 속기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사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웨어타이핑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여러분들이 맨앞에 있든 맨뒤에 있든 옆에 있든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자막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고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제가 에이유디에서 학교, 지역을 방문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안 들리고 어떻게 다

른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소통이 흐르는 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소통이 흐르는 밤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20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소통이 흐르는 밤을 줄이면 소밤이라고 하거든요.

소밤 이름도 예쁜데,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면 첫 번째 소통이 흐르는 밤이 첫 번째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소통이 흐르는 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그때 당시에 2015년에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이유디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얼굴 보고이니 사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는데 벌써 6 번째거든요. 여러분이 관심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 첫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소통이 흐르는 밤의 1회부터 출연진이거든요.

맨아래 오른쪽에 준브라더스 마술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있는 토끼 베니 작가님, 그분도 연사로 나오셨고요.

독고정 대표님, 페스티벌 나다를 하공무 하거든요.

그분이 은종 님을 섭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윤혜령 바리스타, 우승호 작년에 우리 에이유디 대표연사로 서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분이 서게 될지 궁금하고요. 올해 저희가 세 명의 강연자를 초대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이런 분들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우승호 :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대표연사 소개를 받고 제 얼굴만 유독 클로즈업 돼서 나왔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6년차에 접어든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직 조합원이 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청각장애인들이 눈으로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합원이 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강의입니다.

첫 시작부터 영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포자로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봤지만 영어를 못해서 늘 통역사에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우

2019. 11. 02 (토) '2019 소통이 흐르는 밤' 제2부

리 모두에게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가장 보통의 영어 박민정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건강한지구인 박민정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를 지정을 해 주셨는데 맞게 잘 섰는지 모르겠어요.

소통이 흐르는 밤 행사에 초대 받은 건강한 지구인 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저는 에이유디의 조합원으로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그동안 소담 행사때마다 간식이나 먹고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더니 얼떨떨하고 아시는 많은 분이 오셔서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보통의 영어,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고민을 하고 공부해온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내용이 꼬여서 이게 아닌데 나왔거든요. 앞의 내용이 잘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한 번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보고싶는데 계신 분 중에 영어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다, 손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분이 영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조금전에 저를 소개해드릴 때 지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구인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구인이 되기 전에는 영어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제가 지구인이 되기 전에는 저는 서울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외국으로 가야겠거나 외국으로 가야 할 필요를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의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영어를 늘 생각하면 여러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사진의 제목을 알고 계신 분 손들어보시겠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이 사진의 제목을 추측해보시겠어요? 제목이 뭘까요? 추측해보시겠어요?

제목?

아마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나오는 이 사진의 제목은 바로 '옆집 애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혹은 '옆집 애는 결혼했다더라' 무엇을 했다더라.

많은 분이 영어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부터 받으세요.

여러분께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꿀팁에 뒤에 있거든요.

2019. 11. 02 (토) '2019 소통이 흐르는 밤' 제2부

이렇게 세계지도가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서울시민으로 서울에 꼭 살았죠.
 외국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20살에 기회가 찾아와요.
 그게 한일장애인대학생 교류 대회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는 행사였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너무 신났죠. 처음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서 일본편의시설도 둘러보고 일본인 대학생도 만났죠.
 정말 신기한 게 그때만 해도 에이유디도 없고 자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였거든요.
 저도 혼자서 잘 들리지도 않는데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노트테이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문제가 있었죠.
 첫째,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
 둘째, 영어도 못합니다.
 셋째, 수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도저히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한적으로밖에 손짓, 발짓과 그림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뭘 배워야겠다.
 그러고서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 방법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갈 수 있는 방법은 교환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려고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해야 할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하면 금방 해요.
 건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익 몇 달만 공부하면 바로 고득점 되는데 저는 그게 평생 해본 적이 없어서 한 학기를 쉬었는데 휴학 하고도 안 돼요.